"샌디에이고, 김광현 측과 만나"

지난 2014년에도 관심 보여…낮은 보장연봉에 계약 무산

"밀워키와 3년 계약 맺은 린드블럼과 올시즌 기록 비슷"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다시 한 번 김광현(31)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14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구단이 한국인 좌완투수 김광현 측과 만났다고 전했다.

샌디에이고는 지난 2014년에도 김광현에게 관심을 보냈던 구단이다. 김광현이 2019시즌이 끝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하자 샌디에이고는 또 한 번 김광현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2014년 당시 샌디에이고는 포스팅 시스템 최고 입찰액 200만달러를 적어내 김광현과 협상할 수 있는 단독 교섭권을 얻었다. 그러나 기대치보다 낮은 보장연봉(100만달러)에 계약은 무산됐다.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메이저리그 구단 중 가장 높은 응찰료를 적어낸 구단이 해당 선수와 독점 협상권을 가졌지만 한·미 선수계약 협정이 개정되면서 30개 구단과 자유 협상을 벌일 수 있다.

2016시즌이 끝나고 팔꿈치 수술을 받은 김광현은 2018시즌 마운드로 돌아와 25경기 11승 8패 평균자책점 2.98을 거뒀다. 올해는 31경기에 출전해 17승 6패 평균자책점 2.51로 완벽한 재기를 알렸다.

디 애슬레틱은 "김광현은 밀워키 브루어스와 3년 계약을 맺은 조쉬 린드블럼과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원할 것"이라며 "린드블럼과 김광현의 2019시즌 KBO리그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2015년 KBO리그에 입성해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를 거친 린드블럼은 지난 12일 밀워키와 3년 보장금액 912만5000달러, 옵션 충족 시 최대 1800만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맺었다.

뉴스1

이시형 · 차준환 · 이준형 남자 피겨의 미래 15일 경남 김해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열린 '2019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싱글 시상식에서 1위를 차지한 차준환(가운데)과 2위 이시형(왼쪽), 3위 이준형이 메달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통산 3번째 메달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대회 '은메달 획득'

'배추보이' 이상호(24 · 하이원)가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자신의 월드컵 통산 메달 수를 3개로 늘렸다.

이상호는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2019-20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 경기에서 준우승했다. 예선을 5위로 통과한 뒤 결승에서 롤랑 피슈날러(이탈리아)에게 아깝게 졌다.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월드컵 은메달 역시 값진 결과다. 이상호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월드컵 메달이다.

이상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의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낸 바 있다.

월드컵에서는 2017년 3월 터키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 역시 한국의 설상 월드컵 사상 첫 메달이었다. 지난 3월에는 평창올림픽과 같은 코스에서 열린 월드컵에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올 시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상호다.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컵 평행대회전에서 우승하며 시즌을 시작한 이상호는 지난주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평행회전 15위, 평행대회전 9위에 올랐다.

한편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정해림(24)은 17위에 올랐다.

뉴스1

피겨 임은수, 회장배 랭킹대회 쇼트프로그램서 1위

기술점수 40.52점 · 구성점수 32.16점 등 총 72.68점

한국 여자피겨 간판 임은수(16 · 신현고)가 회장배 랭킹대회 쇼트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임은수는 14일 김해문화재단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열린 2019 KB금융 전국남녀 회장배 랭킹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0.52점, 구성점수(PCS) 32.16점 등 총 72.68점으로 1위에 자리했다.

임은수는 2019-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그랑프리 1차 대회 5위, 6차 대회에서 7위에 그치며 주춤했으나 국내대회에서 다시 기량을 끌어 올렸다.

이날 임은수는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어 수행점수(GOE) 1.53을 챙겼다.

이어진 플라잉 카멜 스핀과 스텝 시퀀스는 모두 최고난도인 레벨4로 처리했고 트리플 플립 점프도 실수없이 뛰었다.

가산점 구간에 배치한 더블 악셀도 무난하게 소화했고 레이백 스핀과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도 모두 레벨4로 연기하며 경기를 마쳤다.

이해인(14 · 한강중)이 70.23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김예림(16 · 수리고)이 68.61점을 얻어 3위에 자리했다.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은 15일에 열린다.

이 대회는 2020년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전과 2020-21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한다.

뉴스1

'교체명단 포함' 이승우, 데뷔전 또 무산

이승우(21 · 신트트라위던)의 벨기에 무대 데뷔전이 또다시 미뤄진 가운데 팀은 대패를 면치 못했다.

신트트라위던은 15일 오전 4시(한국시간) 벨기에 바레험의 레인보우 스타디온에서 열린 2019-20 벨기에 퍼스트 디비전A 19라운드 쥘터 바레험과의 원정 경기에서 1-5로 패했다.

신트트라위던은 컵 대회를 포함해 3연패 부진을 겪으며 승점 22점(6승4무9패)으로 10위로 처졌고, 바레험은 승점 31점(9승4무6패)으로 6위에 올랐다.

이날 이승우는 지난 17라운드에 이어 다시 한번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출전 기대를 높였지만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데뷔전 역시 미뤄지게 됐다.

지난 8월 말 보다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 이탈리아 세리에A를 떠나 벨기에로 무대를 옮긴 이승우지만, 4개월여간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팀은 바레헴에 완패했다. 전반 7분 사이도 베라히노에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가다 전반 34분 알렉상드로 드 브륜이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전반 45분과 후반 4분 오마르 고베아에 연속골을 허용한 뒤 후반 9분 다비 데 파우, 후반 추가 시간에 압둘라에 시사코에 잇따라 실점하며 대패를 당했다.